

강진 가우도에 리조트형호텔·해상케이블카 들어선다

전남도·강진군·(주)GFI개발, 관광단지 조성 3887억 원 투자협약

2024년까지 풀빌라 118실·스카이라이프·알파인 코스터도 조성

전남도와 강진군은 24일 (주)GFI(Gaudo of the Fantasy Island)개발과 강진 가우도 일원에 3687억 원을 투자해 관광·레저·휴양시설을 건설할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남도청에서 가진 협약식은 코로나19 전국적 확산추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이용객 (주)GFI개발 대표와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승욱 강진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약식으로 치러졌다.

협약에 따라 (주)GFI개발은 가우도 일원 28만 8000㎡를 오는 2024년까지 3687억 원을 투자해 리조트형 호텔 340실과 풀빌라 118실(단독형 34실·테라스형 84실)을 비롯해 해상케이블카, 스카이라이프, 알파인 코스터 등을 조성하게 된다.

조성이 완료되면 3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우도에 관광·레저·휴양시설이 들어선다면 신안 천사대교, 목

포 해상케이블카, 순천만 정원 등과 연계해 전남 서남부권 관광인프라 확충은 물론 더 많은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동력이 돼 관광객 증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남의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의 일환으로 영광에서부터 서남권 주요 섬을 연결해 부산까지 해안관광도로를 건설하고, 호남의 병역사공원 조성 등 거점별 관광지를 조성하는 '남해안 신성장 관

광벨트' 사업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광주-강진간 고속도로(2023), 목포-보성간 남해안 철도(2023) 개통 등 주변 기반시설이 개선되면 내륙관광과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가우도 관광단지 조성 사업으로 전남 중남부권 관광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라남도도 강진군과 함께 이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되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민선 7기 이후 지금까지 584개 기업과 투자 17조

2044억 원, 1만 6976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오는 2022년까지 1000개 기업 유치를 목표로 투자유치에 총력을 쏟고 있다.

강진=김영일 기자



2044억 원, 1만 6976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오는 2022년까지 1000개 기업 유치를 목표로 투자유치에 총력을 쏟고 있다. 강진=김영일 기자

장흥군, 코로나19 대응현장에 음압특수구급차 배치

환자의 안전한 이송·의료진 2차 감염 예방



장흥군은 코로나19 확진·의심 환자 이송을 위한 음압특수구급차를 도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음압특수구급차는 환자의 안전한 격리기반 이송과, 의료진들의 2차 감염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군은 그동안 지역 내 감염병 환자나 의심환자 발생 시 일반구급차로 이송했으나,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른 음압특수구급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 전액 국비를 지원 받았다.

구급차 내에는 자동차 내 압력

을 낮추어 공기 중 바이러스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음압시스템(음압배출기 및 음압공조기)이 탑재되어 있으며, 고성능 흡입기를 설치하여 초기 응급처치에 편리하도록 제작됐다.

위급한 환자의 이송에 필요한 응급구조장비세트, 자동제세동기, 환자감시장치, 음압덮개로 이루어진 환자 운반기 등이 탑재되어 있어 재난현장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흥군 보건소 관계자는 "음압특수구급차의 배치로 감염병 대응태세가 더욱 견고해 졌다"며, "감염병의 지역사회 유입 차단에 더욱 철저히 대비해 군민의 건강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진도 신기마을·목포해경진도파출소 해양오염 자율방제지원 업무협약

진도군 군내면 신기마을 어촌계와 목포해양경찰서 진도파출소가 해양오염 자율방제를 위한 업무협약을 최근 개최했다.

해양오염 자율방제 일환으로 지난 19일(수) 신기리 마을회관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24일(월) 신기마을 어촌계원과 목포해양경찰서 진도파출소, 어촌특화지원센터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해안가에 산적해 있는 해양 쓰레기를 수거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신기마을 해안가 중심으로 바다가꿈행사로 해안가에 산적해 있는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청정진도 가꾸기에 앞장섰다.

진도=조상용 기자

완도군, 청년 기업 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하다

조선대-완도청년기업협의회와 지역 발전 협력 체제 구축

완도군은 지난 21일 조선대학교(총장 민영돈), 완도청년기업협의회(대표 김태훈)와 청년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발전 및 2021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하여 지역 내 청년 기업 활성화, 관광산업 및 완도군의 미래 산업인 해양치유산업 등 추진에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내년에 개최되는 완

도국제해조류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박람회 홍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완도군청년기업협의회는 완도군의 수산물 가공판매, 도소매, 양식, 기자재 등 16개 기업의 청년기업인이 조선대학교 LINC+사업단과 중소기업 운영의 어려움과 새로운 시장 진입의 문턱이 높음을 공감하고 이를 함께 풀어나가기 위해 지난 5월 발족했다.

이에 완도군과 완도군청년기업

협의회, 조선대학교 LINC+사업단은 손을 잡고 청년 기업인 활동 지원 프로그램인 '완도 꿈(Dream)을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다.

'완도 꿈(Dream)을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 기업인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관광업, 해양·수산업 등 지역 발전을 위해 청년 기업인에게 멘토 역할 및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추후 대기업 견학 및 완도국제해조류 박람회에 제품을 출품하기 위한 연구 및 생산을 위한



기술 지원 등을 할 예정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꿈을 프로젝트"를 통하여 우리 군의 청년 기업인들의 더 큰 성장을 바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해남군 "여름철 축사 모기 걱정마세요"

친환경 해충퇴치 램프 효과

설치하는 전기 램프로 빛의 파장을 이용해 친환경적으로 모기유입을 차단하는 기기이다.

기존 연막소독과 같은 화학적 방제는 환경오염과 가족피해 우려로 살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해충 퇴치용 램프는 축사 내에 상시 설치하는 물리적 방제장비로 친환경적으로 모기유입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해충 퇴치용 램프는 축사 내에

기동취재본부

책과 함께 즐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